



2018년 3월 18일(제867호) 시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성찰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곧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모습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으로서 인간이 하느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 가장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잘못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마저도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계기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는 관계 안에서의 회생이며 죽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희

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닐 것이고 남을 위해서만 하는 행동도 아닐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위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경외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뻔하게 다가올 고통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이 바로 용서의 근원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형제끼리 싸운 후 아버지께 혼날까 무서워 화해하듯 우리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함을 통해 용서의 행위가 번져 나갈 것입니다.



이지성(임미누벨) 신부
해군교육사(해군 교육사령부) 상영 주일

제 1 특 시

예레 31,31-34

회 답 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 2 특 시

히브 5,7-9

복음 본보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요한 12,20-33

영 성 제 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진리를 살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당은 하나의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나 장식은 언제나 그 시대의 신학과 신심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고딕식 건축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고 그분만을 중심으로 삼았던 중세에 꽃핀 양식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주를 이루는 로코코, 바로크 양식의 성당은 신앙생활이 내적으로보다는 외양적인 데로 흐른 중세 후기에 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성당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자리를 어느 정도나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지어진 성당은 과장된 성체신심으로 인해 감실이 성당의 중심인 양 배치되고 장식되었으며, 대부분 제대 위나 제대 바로 뒤 성당 중앙 벽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성체보다는 성체 공경을 더 좋아하던, 신앙생활의 실천보다는 미사의 의무를 더 강조하던, 말씀에 따라 사는 삶보다 정적인 성체조배를 더 강조하던 당시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듯 감실이 중심이 되는 성당 구조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신심을 일소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성찬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전례도 이에 맞추어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 이후에 지은 소위 현대식 성당은 외양이나 내부 장식에서 변화가 있을 뿐, 여전히 감실이 중심이 되는 옛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의회 이전의 왜곡된 신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구조가 이러하니 신자들은 여전히 성찬례 자체보다는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를 공경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감실과 그 옆에 켜둔 감실등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

제대와 감실의 관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아무리 말로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다, 성찬례가 우리 신앙의 원천이다 해보았자 정작 신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감실과 그 안에 모셔진 성체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는 하나 우리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은 어떠합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단지 주일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진 감실에 비해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는 사정이 어떠합니까? 감실 안에 책이나 잡동사니를 넣어 둔다면 펄쩍 펄 우리들이 독서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제대마저도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찬례

우리가 미사(성찬례)를 지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것은 제자들이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당신을 기념하는 가운데 죽기까지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천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례의 핵심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聖變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체와 성혈로 드러나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 즉 파스카 신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례를 지내는 우리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실 때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묵상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사는데 있습니다. 내어주고 나누고 헌신하는, 한마디로 ‘위하는 삶’을 사는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인 성찬례(미사)의 본뜻이라 하겠습니까.

최창덕 F.히비에른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관은 아니지만
승리자의 관
가시관입니다.
아름다운
내 념의 관이지요.

상화이야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림(제단화)



루벤스 (1577-1640)
1612-14년 作,
패널 위 유화 421 X 153 cm
인트워프 대성당, 벨기에 인트워프

지난주에 Christ bearer 즉, 크리스토퍼 성인이라는 주제가 그림의 길면과 안쪽 양 날개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보았다. 이번 주에는 이 제단화의 중심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살펴 보며 이 주제가 어떻게 묘사,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손과 발, 옆구리, 얼굴이 피로 범벅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 십자가 맨 위쪽 왼쪽 인물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필력이며, 오른 다리 또한 허공에 들려 있고, 오른손은 방금 막 예수님의 몸을 놓친 듯이 보인다. 나머지 손으로는 예수님의 수의를 꼭 잡고 있으며, 그 옆의 인물은 조금 더 나이가 든 인물로, 이빨로 수의를, 한 손은 십자가에 손을 지지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예수님의 팔을 잡고 있다.

십자가의 중간 부분에는 아리마태아의 성요셉(왼쪽)이 수의와 예수님의 몸을 받치고 있으며, 그의 맞은편에는 니코데무스가 보인다. 하단에서 예수님의 몸의 무게를 전적으로 받치고 있는 이는 사도 요한으로 붉은색 옷을 입어 매우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는 예수님의 몸의 무게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왼쪽 아래에는 성모님을 비롯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의 발 한쪽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에 얹혀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5주일: **해병대요람 김경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3월 18일(주일) 11:00

◆ **군중교구 교육국 직원 모집**

자격 : 대졸 이상, 운전 가능자
인원 : 1명
접수 : 4월 20일(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군 복음화, 반침략은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